

뮤지컬

드림 오브 고창 한반도 첫 수도

Story

고창이 한반도 첫 수도가 된 배경을 스토리텔링한 뮤지컬이다.

현대의 할아버지와 손녀가 고인돌마을을 돌아보고 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석기시대인들이 고창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고창이 한반도 첫 수도가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선사시대의 고창. 주민들이 모두 들녘에 나가 보리밭기를 하는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펼쳐진다. 하늘제사를 올리던 날, '모랑'과 '보리'는 운명적으로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북방오랑캐가 남침해 약탈을 벌이면서 한반도가 위기에 처하자, 각 부족들은 모랑을 대장으로 연합군을 결성하여 오랑캐와 결전을 벌인다.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랑캐를 몰아내지만 모랑은 전사하고 만다. 모랑을 고인돌무덤에 안치하기 위해 고창에 모인 한반도 대표들에게 보리는 모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가 하나로 뭉칠 것을 호소한다. 장례식을 마친 한반도 족장들은 한반도연합국가를 결성하는데 합의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고창을 한반도 첫 수도로 결정한다. 이어서 전 출연진과 관객들이 고창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축제를 벌인다.



작, 연출/ 최솔



뮤지컬PD/ 오은성



안무/ 박현희



성악/ 송은희



뮤지컬레이젠/ 박준혁



춤추는 벚들/ 김민경



극단만정/ 권경선



극단갈무리/ 조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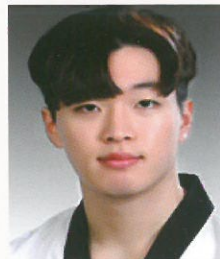
브리즈아트/ 김세욱



고창모양보릿대춤
보존회/ 이승규



(사)판소리보존회
고창지부/ 김옥진



화랑바람소리시범단/
김진우